천연기념물 황새 서식

익산 만경강, 수질 획기적 개선… 우수한 생물종 다양성 입증

익산시 만경강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의 월동 현장이 포착됐다.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만경강 조류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황새의 월동 현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황새가 만경강 익산천 합류지점에서 마산천 합류지점을 오가며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마산천 주변에서는 다수의 노랑부리저어새와 흰꼬리 수리, 독수리 등 희귀종 13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익산시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과 생태복원사업으로 한때 만경강의 주 오염원이었던 익산천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시는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만경강 생태하천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활동 전개하여 익산시의 젖줄이자,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인 만경강을 생태하천으로 변모시키고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생태연구가 유칠선 박사는"청정지역으로 다양한 철새들의 먹이가 풍부한 익산의 만경강에서 철새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지속적으로 만경강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 자원을 보전하고 낚시금지구역 지정, 불법 캠핑 방지 등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변함없이 만경강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익산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만경강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민·관·학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귀농·귀촌 메카 부상, 인구 유입 효과 '톡톡'

익산, 유치부터 사후관리까지 4단계 맞춤형 정책 눈길

익산시가 추진하는 단계별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인구 유입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단계별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인구 유입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책으로 청장년층이 모여드는 젊은 농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천157세대, 6천960명(귀농 329세대 488명, 귀촌 4,828세대 6,472명)이 익산 지역 농촌에 안착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시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 각종 지원정책이 뒷받침됐다.

시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익산과 함께 성장하는 귀농·귀촌!'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귀농·귀촌 유치부터 준비, 정착, 사후관리까지 4단계에 걸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수도권 도시민 교육,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귀농·귀촌 박람회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익산=이득훈 기자

황철호 부시장 주요현안 현장 방문 격려

황철호 부시장이 주요현안 현장을 방문해 환경미화원의 근무상황과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2022년을 맞아 주요현안 현장을 방문해 인력 및 장비 등을 점검하고 시 동지역 및 고군산군도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가로처 청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

황 부시장은 이날 환경미화원들과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황 부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환경미화원 여러분이 추운날씨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있어 군산시가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기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산을 청정한 환경으로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대학교는 11일 대학 본부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군산대학교 유튜브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군산, 순간을 펼치다'

군산대학교 유튜브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군산대학교는 11일 대학 본부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군산대학교 유튜브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군산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지역민과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전은 9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공모 기간을 거쳐 군산대학교와 군산 지역의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한 공모작들을 접수하였다.

3분~5분 내외 길이의 (1080p) 이상 화질 영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모 결과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고, 수상자들에게는 총 2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대상에는 만보 팀(백종민, 김영인, 이주형)의 "군산, 순간을 펼치다"가 선정되었다. 금상에는 곰애곰 팀(조혜원, 조혜경, 박민우)의 "우리는 여전히 캠퍼스", 신재취 팀(고은서, 조연희, 서미나, 이순금)의 "우리가 꿈꿨던 군산대학교"가, 은상에는 스트릿장학금 파이터 팀(김홍진, 김민지, 송봄, 최정윤)의 "군산대 장학금 도장깨기", 동상에 군산대에빠지다 팀(박주석, 문주영, 이연후, 박래윤)의 "군산대에 빠지다"가 차지하였다.

군산대학교는 공모작들을 군산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대학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산=남현봉기자

에이치와이테크, 군산짬뽕라면 256박스 기탁

군산시는 (유)에이치와이테크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군산짬뽕라면(20개入) 256박스(1,0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산시 옥구읍에 위치한 (유)에이치와이테크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 디지털무선 마을동보시스템, 유무선 통신공사, CCTV, 업무용 무전기 제조업체다.

기탁식에 참여한 김종헌 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려는 성금·품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준 (유)에이치와이테크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기탁된 성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및 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3차 백신 접종률 50% 달성

익산지역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접종 완료율 50%를 달성했다.

시는 지난 10일 기준 누적 코로나19 접종자 수는 1차 접종 24만 523명, 2차 접종 완료자 23만 6천107명, 3차 접종(추가) 13만 9천19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익산시 전체 인구 대비 2차 접종률은 95.5%이며 3차 접종률은 50%를 보이고 있다. 이는 3차 접종률 전국 평균 41%와 비교해 9%나 높게 나타난 수치이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0일 0시 기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91.5%에 이른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 청년 정착 돕는 '전북형 청년수당' 모집

익산시가 지역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전북형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전북형 청년수당' 참여자 40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형 청년수당은 취업 초기 낮은 임금을 보전해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에서 39세 청년 중 공고일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했고 현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청년들이다.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들은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업종제한을 해제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2월 25일경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고, 이들은 월 30만원 씩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신용카드와 연계한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해당 지원금은 익산 뿐 아니라 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익산=이득훈기자